

가정과 교육내용의 유용성 인지에 관한 연구
— 중학교 '가족과 일의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

지 금 수* · 이 진 숙**

전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 정인대학 아동복지과 전임강사**

A study on students' utility cognition of Home Economics course

Chi, Keun-Soo* · Lee, Jin-Sook**

*Dept. of Home Management, Choubuk National Univ.**
*Dept. of Child Welfare, Jeongin College***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students' utility cognition and related variables on the 'understanding of family and work' in the Home Economics course. The subjects were 503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university students in Jeonju c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level of utility cognition on the 'attitude of sexuality' was found to be relatively high in the Home Economics course.
- 2) There were gender difference in the evaluation of learning environment, and grade differences in the evaluation of learning environment, participation in class of Home Economics, needs for Home Economics, evaluation of learning environment.
- 3) The utility cognition of Home Economics course significantly differed by gender, participation in class of Home Economics, needs for Home Economics, evaluation of learning environment, and perception of Home Economics.
- 4) The needs for Home Economics emerged 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the utility cognition of Home Economics course.

주제어(Key Words) : 가정교과 유용성인지(utility cognition of Home Economics course, 학습참여도(participation in class of Home Economics), 학습 요구도(needs for Home Economics), 학습환경 평가도(evaluation of learning environment), 가정교과 인식도(perception of Home Economics).

I. 서 론

교육은 사회의 현 상황을 반영해야 할 뿐 아니라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을 기르고 나아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게 함으로써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시민을 육성해야 한다. 급속한 사회변화를 수용하면서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요구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은 모든 영역의 기초가 되므로 그 어떤 영역보다 신중을 기해 교육목적과 내용을 선정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정과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교육부, 2001). 가정과 교육 역시 사회변화에 대응하며 변화해왔다. 즉 가정과 교육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기위주의 기능교육에서 점차 가정생활개선에 필요한 지식·기능·태도를 육성하는 교육으로 변화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정과 교육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보다 적극 반영한 제6차 교육과정시기인 1995년부터 남녀 중학생 모두에게 가정교과를 공통·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술·가정의 통합과목으로 7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국민 공통 기본교과로서 남녀 모든 학생이 이수하게 되었다. 이는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남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가족은 이혼문제, 노인문제, 결혼가정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틀 속에 있었던 가족법이 개정되고 남녀평등이 보편화되는 등 새로운 변화의 도정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정과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가정과 교육내용이 실생활에 적극 활용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은 가족원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공동체로서 원만한 가족관계는 가정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과 사회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하므로 인간발달에 관한 지식을 기초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것은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박우미 외, 1998). 가정과 교육내용 중 특히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가족과 일의 이해' 단원은 청소년의 특성 및 성과 이성교제 등 인간발달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가족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은 사회와 가정생활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 가정교과를 남녀 공히 공통·필수과목으로 이수하기 시작하였던 현재의 대학생과 중학교에서 가정교과를 이수한 후 고등학교에서 다시 가정교과를 이수하고 있는 고등학생들, 그리고 현재 중학교에서 가정교과를 기술·가정의 통합과목으로 이수하고 있는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가정교과가 얼마나 실생활에서 유용한 과목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실생활에서 가정교과의 학습효과를 알아본 선행연구들은 가정교과의 학습효과를 실생활에서의 활용정도(두정자, 1997; 신동순 외, 1997; 김경숙·박미금, 1998) 또는 실생활에서의 도움정도(오현주·홍성야, 1997; 신용해·조재순, 1999) 등의 개념을 사용해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과 학습자의 관점에서 가정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 활용한 결과 얼마나 유용하였는지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내용 중 '가족과 일의 이해'를 중심으로 6차 교육과정 시기에 중학교에서 가정교과를 학습한 고등학생, 대학생 및 7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교과를 학습하고 있는 중학생이 가정교과에 배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유용하다고 인지하는지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정교과 변인들을 규명함으로써 가정과 교육의 기여도를 높이고 가정과 교육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발전하게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가정교과 변인 및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개인 변인에 따라 가정교과 변인 및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가정교과 변인에 따라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는 차이가 있는가? 넷째,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에 대한 개인 변인, 가정교과 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제 7차 교육과정 중 '가족과 일의 이해'의 교과내용

남학생들이 가정교과 중 일부를 이수하게 된 것은 1990년에 시작된 제 5차 교육과정 시기이다. '실업·가정'교과가 기술, 가정, 기술·가정의 3과목으로 구성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이들 세 과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가르치게 된 것이다. 이후 제 6차 교육과정부터 중학교에서 가정교과를 남녀 학생에게 공통으로 가르치게 되었으며, 2001년부터 시행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통 필수교과목으로 학습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교과와 기술교과의 통합교과 형태이지만 남녀 학생 모두에게 필수과목이 되었다는 점에서 남녀 성 평등 의식을 증진시키고 가정교과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

가정은 의·식·주·자녀양육·가정관리 등 기본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가정의 기능이 원만하게 수행될 때 국가 사회가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다. 또한 미래사회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남녀 역할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가정생활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하는 가정교과에서 양성간의 평등한 인간관계를 중요한 교육내용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정해운·채정현, 2001). 이러한 맥락에서 제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가족과 일의 이해' 단원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내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중학교(7학년)¹⁾에서 '가족과 일의 이해'는 '청소년의 특성', '성과 이성 교제', '나와 가족관계'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특성'은 청소년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기의 신체 및 사회심리 발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 이성교제'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이성 교제를 통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이다. 청소년기는 제 2차 성징이 나타나면

서 신체가 급성장 하는 시기로 성적 욕구와 호기심이 생기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이성교제를 시작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단원은 성교육차원에서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 성윤리, 임신과 피임, 성문제, 이성교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성교육이란 일생을 통해 완전한 인격형성을 목표로 하는 인간교육으로서 인간발달과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에 관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김미정·유태명, 1997).

'나와 가족관계'는 청소년이 가족 관계의 의미를 알고 가족간의 의사소통 기법을 익혀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으로 부모, 형제, 친족 등과의 가족관계, 의사소통,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가족의 변화에 따라 가족, 결혼, 출산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가족원들의 태도 및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이연숙, 1997) '나와 가족관계' 단원은 원만한 민주적인 가족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가정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건강한 가족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 가정과 교육내용의 유용성 및 관련변수 고찰

가정교과는 가정과 사회생활 등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생활태도와 능력을 길러서 가정과 사회의 발전 및 안녕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교육부(2001)는 기술·가정과는 다른 교과보다 실생활에서의 유용성을 중시하므로 교과내용도 학생 활동 중심, 사례 중심과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을 선정하였다고 하였다. 즉, 기술·가정은 단순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능력과 태도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과로서, 이러한 목표 구현을 위해서는 체험을 통한 학습이 필수적인 점을 중시하여 실험·실습, 조사, 견학, 토의, 사례 연구 등 적절한 체험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가정교과에서 습득한 실천적인 능력과 태도가 학생들의 현재는 물론 미래생활에서까지도 활용되어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될 때 가정교과의 유용성의 가치가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교과는 실천적 교과로서 학습결과가 실생활에

1)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II).

서 유용하게 활용되는지 여부는 가정과 교육목표의 달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가정교과의 학습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가정과 교육의 실생활에서의 활용정도(두경자, 1997; 신동순 외, 1997; 김경숙·박미금, 1998) 또는 실생활에서의 도움정도(오현주·홍성야, 1997; 신용해·조재순, 1999)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과와 학습자의 관점에서 가정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 활용한 결과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유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가정과 교육내용의 유용성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가정교과의 활용정도, 도움정도, 학습효과 등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가정교과의 유용성 및 관련변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박일록(1997)의 연구결과, 교사·학생·학부모 등 조사대상자 모두가 전체 영역 중에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²⁾영역이 '의생활 영역'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단원이라고 하였다. 또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 중에서 남학생은 '청소년기와 사춘기', '청소년의 성', '사회적 욕구의 충족', '가족원간의 이해와 협동' 순으로, 여학생은 '청소년의 성', '청소년기와 사춘기', '진로의식의 발달과 직업에 대한 준비', '청소년의 생리적 발달',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신동순 외, 1997)에 의하면, 가정교과 영역별 활용도는 '간단한 음식 만들기', '청소년기의 건강과 영향의 특성' 다음으로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 '청소년기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김승현과 정옥분(1997)은 중학생들이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에서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이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 그 다음이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 '생리적 발달', '가정생활에서의 나의 역할'의 순이었다고 하면서,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상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문과 2차 성징의 발현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한편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로 수업이 실제적이지 못하고 지식에만 치우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숙·박미금((1998)의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가정교과 활용도가 '식생활'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의 순으로 나타났고, 24개 하위영역 중에서는 '청소년의 발달의 특징'의 활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신동순 외(1997)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의 활용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현주·홍성야(1997)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정교과가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신용해·조재순(1999)의 연구결과 역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에서 배운 가정교과가 성인이 되어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하여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정교과 활용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두경자(1997)는 중학교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가정교과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실생활에서 가정교과의 활용도가 높거나 낮은 남학생 모두 실기위주의 수업방법을 희망했다고 밝혀 남학생 역시 가정과 교육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중학생의 가정교과 활용도와 관련변수를 고찰한 김경숙·박미금((1998)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교과 수업이 교실보다 현장학습으로 이루어진다고 평가할수록 전체 가정교과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인간발달과 가족관계'영역에서 학습참여도나 가정과교육목표 일치도, 가정과교육 필요도가 높을수록 교과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해·조재순(1999)은 실생활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험·실습을 통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학교에서 배운 가정교과가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성별 및 가정교과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전주시 남녀 중·고 및 대학생으로 하였다(표 1). 학교별 구성을 보면 대학생

2)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로 분류되었으나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족과 인의 이해', '생활기술',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로 분류됨

의 경우 제 6차 교육과정 시기에 중학교에서 가정을 이수한 대학 1학년 학생이 157(31.2%)명 이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교에서 가정교과를 이수한 학생으로 179(35.6%)명 이었다. 중학생의 경우 2001년에 시작된 제 7차 교육 과정의 가정교과를 이수하고 있는 2학년 학생 167(33.2%)명으로 중·고·대학생이 고르게 구성되어 있다. 성별 구성은 남학생이 44.9%이며 여학생은 55.1%로 여학생이 약간 더 많았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조사대상자의 개인 변인, 가정교과 변인, 가정교과 유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 : 가정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서 활용하여 얼마나 유용하였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한다. 제 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의 교과내용 중 '가족과 일의 이해' 영역에서 '청소년의 특성', '성과 이성교제', '나와 가족관계'의 내용체계(교육부, 1997)를 근거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과 교육내용의 유용성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 31문항으로 신뢰도인 Cronbach의 α 계수는 .95이다³⁾.

2) 학습 참여도 : 선행연구(김경숙·박미금, 1998)를 참고로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과 수업시간의 참여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 4문항으로 신뢰도인 Cronbach의 α 계수는 .73이다.

3) 학습 요구도 : 제 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의 교과내용 중 '가족과 일의 이해' 영역의 내용을 근거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자들이 가정교과를 배우고 싶어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총 31문항으로 신뢰도인 Cronbach의 α 계수는 .92이다.

4) 학습환경 평가도 : 선행연구(김경숙·박미금, 1998)에서 사용한 척도로서 총 5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교과 수업이 이론보다는 실제의 경험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총 3문항으로 신뢰도인 Cronbach의 α 계수는 .67이다.

5) 가정교과 인식도 : 제 7차 교육과정의 가정과 교과목표(교육부, 1997)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교과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가정교과에서 이룩하고자하는 목표와 일치함을 의미한다. 총 5문항으로 신뢰도인 Cronbach의 α 계수는 .73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2001년 4월 15~20일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5월 1~1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주 지역의 대학교 3개교, 남자고등학교 1개교, 여자고등학교 1개교, 남녀 공학 고등학교 1개교, 남자중학교 1개교, 여자중학교 1개교, 남녀 공학 중학교 1개교로 본 조사에서 배부된 총 540부의 질문지(중학생-180부, 고등학생-180부, 대학생-180) 중 520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50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통계분석은 Cronbach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503)

변 인		빈도(%)	
개인 변인	성별	남	226(44.9%)
		여	277(55.1%)
	학교	중학생	167(33.2%)
		고등학생	179(35.6%)
대학생		157(31.2%)	

3) 하위영역의 신뢰도 신체적 발달(3문항) $\alpha = .85$, 사회심리 발달(7문항) $\alpha = .90$, 성 생리 및 임신(4문항) $\alpha = .88$, 이성교제(2문항) $\alpha = .93$, 성에 대한 태도(4문항) $\alpha = .91$, 가족관계(5문항) $\alpha = .90$, 의사소통(4문항) $\alpha = .92$, 가족과 사회(2문항) $\alpha = .94$

〈표 2〉 가정교과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503)

변 인		M (SD)
가정교과 변인	학습 참여도	3.33(.81)
	학습 요구도	3.53(.57)
	학습환경 평가도	1.68(.72)
	가정교과 인식도	3.80(.68)

의 a계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중다회귀분석 등이며, SPSS/PC를 이용하였다. 회귀분석시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분산확대지수(VIF: varince inflation factor)가 2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정교과 변인 및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의 일반적 경향

1) 가정교과 변인의 일반적 경향

가정교과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가정교과 수업시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의미하는 학습 참여도는 3.33점, 가정교과에 대한 학습 요구도는 3.53점,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도는 3.80점으로 중간점 이상의 정도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론중심보다는 실제 경험 교육의 정도를 의미하는 학습환경 평가도는 1.68점으로 중간점 이하로 나타나서 본 조사대상자들은 가정교과가 이론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였다.

2)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의 일반적 경향

가정교과 내용 중 대단원인 '가족과 일의 이해'를 8개 영역의 소단원과 이들 소단원을 31가지의 하위주제로 나누어 학습자의 유용성 인지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8개 소단원 중 가장 유용성 인지 정도가 높은 영역은 '성에 대한 태도 및 문제'였으며(M=3.22), 그 다음으로 '성 생리 및 임신'(M=3.18), '신체적 발달'(M=3.17), '이성교제'(M=3.12)의 순이었고, '가족과 사회'는 유용성 인지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M=2.84). 다음으로 소단원의 하위주제별로 유용성 인지 정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 생리'와 '성에 대한 태도'가 가장 유용성

인지 정도가 높았으며(M=3.30) 그 다음으로 '청소년기의 2차 성징(여성)'과 '부모님과 관계'(M=3.26), '수정과 임신'(M=3.25), '성폭력의 피해의 의미'(M=3.23)의 순으로 실생활에서의 유용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의사소통 기술 중 듣기 기술'(M=2.78)의 유용성 인지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소단원 중 '성에 대한 태도 및 문제', '성 생리 및 임신', '신체적 발달' 등의 영역, 하위주제 중 '청소년의 성 생리'와 '성에 대한 태도', '청소년기의 2차 성징(여성)' 등에 대한 유용성 인지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겪게 되는 중학생 시기에 가정교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학생들의 실생활에 필수적인 내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청소년의 성에 대한 내용이 중요시되고(박일록, 1997) '청소년의 발달의 특징'의 활용도가 가장 높으며(김경숙·박미금, 1998),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에서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이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 이라는(김승현·정옥분, 1997)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2. 개인변인에 따른 가정교과 변인 및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

1) 개인변인에 따른 가정교과 변인

가정교과 학습자의 개인변인(성별, 학년)에 따른 가정교과 변인(학습 참여도, 학습 요구도, 학습환경 평가도, 가정교과 인식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에 따른 가정교과 변인은 학습환경 평가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학습환경 평가도가 1.84점, 여학생은 1.56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정교과 수업 형태를 이론중심이 아닌 실제 경험 중심의 수업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정과 학습환

〈표 3〉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 경향 (n=503)

		교과내용	평균	순위	
청소년의 특성	신체적 발달	1. 청소년기의 신체 성장 급등 현상	3.19	9	
		2. 청소년기의 2차 성장(남성)	3.07	18	
		3. 청소년기의 2차 성장(여성)	3.26	3	
		소 계	3.17	3(전체)	
	사회심리 발달	4.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의 발달	3.12	16	
		5. 청소년기의 정서적 발달	3.15	14	
		6. 또래집단과의 우정 관계	3.22	7	
		7. 성 역할 발달	3.16	12	
		8. 성 역할 고정 관념	3.10	17	
		9. 청소년기의 지적 능력 발달	3.04	20	
		10. 청소년기의 도덕성 발달	3.01	22	
		소 계	3.11	5(전체)	
성과 이성교제	성생리 및 임신	11. 여성의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	3.16	12	
		12. 남성의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	3.03	21	
		13. 청소년의 성 생리	3.30	1	
		14. 수정과 임신	3.25	5	
			소 계	3.18	2(전체)
	이성교제	15.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의 의미	3.14	15	
		16. 청소년기의 이성교제의 특성	3.12	16	
			소 계	3.12	4(전체)
	성에 대한 태도 및 문제	17. 10대의 임신	3.18	10	
		18. 성폭력의 피해의 의미	3.23	6	
19. 성폭력의 피해시 대처방안		3.21	8		
20. 성에 대한 태도		3.30	1		
		소 계	3.22	1(전체)	
나와 가족관계	가족관계	21. 부모님과 관계	3.26	3	
		22. 형제 자매와의 관계	3.18	10	
		23. 친족의 존수	2.81	28	
		24. 친족의 호칭	2.81	28	
		25. 친족과의 관계	2.81	28	
			소 계	2.97	6(전체)
	의사소통	26. 의사소통의 의미	2.91	24	
		27. 가족간의 의사소통의 의미	2.94	23	
		28. 의사소통 기술 중 듣기 기술	2.78	31	
		29. 의사소통 기술 중 말하기 기술	2.85	26	
		소 계	2.87	7(전체)	
가족과 사회	30. 가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86	25		
	31. 사회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	2.84	27		
		소 계	2.84	8(전체)	
		전 체	3.09		

〈표 4〉 개인변인에 따른 가정교과 변인 (n=503)

가정교과 변인 개인변인	구 분	빈도	학습 참여도		학습 요구도		학습환경 평가도		가정교과 인식도	
			M	D	M	D	M	D	M	D
성별	남	226	3.32		3.59		1.84		3.85	
	녀	277	3.33		3.49		1.56		3.76	
	t 검증		-0.01		1.86		4.36***		1.49	
학년	중	167	3.18	A	3.41	A	1.45	A	3.72	
	고	179	3.53	B	3.65	B	1.72	B	3.84	
	대	157	3.27	A	3.54	B	1.91	C	3.85	
	F 검증		8.88***		7.95***		18.2***		1.80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경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가정교과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데 관심이 많고 실기위주의 수업방법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난 두경자(1997)의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이론보다는 실제 경험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가정과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년에 따른 가정교과 변인은 학습 참여도, 학습 요구도, 학습환경 평가도의 가정교과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습 참여도에서는 고등학생(3.53점)이 대학생(3.18점)과 중학생(3.27점)보다 가정교과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요구도의 경우 고등학생 3.65점, 대학생이 3.54점으로 3.41점인 중학생보다 가정교과 학습 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환경 평가도

에서는 중학생은 1.45점, 고등학생은 1.72점, 대학생은 1.91점으로 현재 가정과 수업을 받고 있는 중학생들이 가정교과 학습환경을 보다 이론 중심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체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가정교과에 대한 학습 요구도와 학습환경 평가도에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2) 개인변인에 따른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

개인변인(성별, 학년)에 따라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가족과 일의 이해'의 전체 영역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3.20점, 여학생이 2.99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과 일의 이해'의 가정교과 내용을 더 유용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신체적 발달', '성생리 및 임

〈표 5〉 개인변인에 따른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 (n=503)

교과 내용 개인변인	구 분	빈도	청소년의 특성				성과 이성교제				나와 가족관계				전체					
			신체적 발달		사회심리 발달		성생리 및 임신		이성교제		성에 대한 태도		가족관계				의사소통		가족과 사회	
			M	D	M	D	M	D	M	D	M	D	M	D	M	D	M	D		
성별	남	226	3.22		3.23		3.16		3.25		3.12		3.22		3.19		3.08		3.20	
	녀	277	3.13		3.01		3.20		3.01		3.31		2.76		2.60		2.65		2.99	
	t 검증		1.24		2.85***		-0.44		2.31*		-1.98*		5.46***		6.60***		4.48***		3.38**	
학년	중학생	167	3.07		3.05		2.88	A	3.09		2.95	A	3.01	AB	2.92		2.83		3.00	A
	고등학생	179	3.24		3.19		3.40	B	3.18		3.48	C	3.03	B	2.81		2.89		3.19	B
	대학생	157	3.19		3.07		3.25	B	3.09		3.22	B	2.85	A	2.87		2.80		3.07	AB
	F 검증		1.81		1.38		13.05***		.33		10.83***		1.82		.43		.32		3.18*	

***p<.001, **p<.01, *p<.05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신'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내용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가정교과 유용성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정교과의 활용도가 긍정적이고 가정교과가 실제생활에서 도움이 된다고 인지한 선행연구 결과(신동순 외, 1997; 오현주·홍성야, 1997)와 상반되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대상이 가정교과를 이수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포함된 것에 비해 선행연구는 중·고교 재학 중인 학생인 점(신동순 외, 1997; 오현주·홍성야, 1997), 본 연구에서는 조사내용이 '가족과 일의 이해'로 한정되어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연구(신용해·조재순, 1999)인 때문으로 판단된다. 남학생들이 가정교과 내용에 대하여 유용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6차 교육과정 이후 남학생들에게 가정교과가 필수 과목이 되고 7차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1학년)까지 확대된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년에 따른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를 살펴본 결과, '가족과 일의 이해'의 전체 영역에서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학생이 3.00점, 고등학생이 3.19점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전체 '가족과 일의 이해'의 교과내용을 더 유용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성생리

및 임신', '성에 대한 태도 및 문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생리 및 임신'의 경우 중학생이 2.89점,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각각 3.41점과 3.26점으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대학생이 '성생리 및 임신' 내용을 더 유용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대한 태도 및 문제'의 경우에는 중학생이 2.96점, 고등학생이 3.47점, 대학생이 3.23점으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성에 대한 태도 및 문제' 내용의 유용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생리적 변화에 적응하기 시작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 신체발달이 더욱 성숙해지고 이성교제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성 생리 및 임신, 성에 대한 태도 및 문제 등에 관련된 가정교과 내용의 유용성을 보다 많이 인식하게 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가정교과 변인에 따른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

가정교과 변인(학습 참여도, 학습 요구도, 학습환경 평가도, 가정교과 인식도)에 따른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의 차이검증 결과는 <표 6> 과 같다. 먼저 학습 참여도에 따른 가정교과 유용성은 전체 '가족과 일의 이해' 영역과 대부분의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

<표 6> 가정교과 변인에 따른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 (n=503)

교과 내용 가정교과변인	구분	빈도	청소년의 특성				성과 이성교제					나와 가족관계				전체				
			신체적 발달		사회심리 발달		성생리 및 임신		이성교제		성에 대한 태도		가족관계		의사소통			가족과 사회		
			M	D	M	D	M	D	M	D	M	D	M	D	M	D	M	D		
학습 참여도	하	120	2.92	A	2.87	A	2.98	A	2.97		2.99	A	2.67	A	2.56	A	2.55	A	2.84	A
	중	200	3.15	B	3.10	B	3.11	B	3.08		3.14	A	3.05	B	2.94	B	2.87	B	3.08	B
	상	183	3.35	C	3.29	C	3.39	C	3.27		3.47	B	3.08	B	2.99	B	3.01	B	3.25	C
	F 검증		9.03***		9.07***		7.32**		2.88		8.08***		7.95***		7.28**		6.70**		13.27***	
학습 요구도	하	145	2.77	A	2.63	A	2.78	A	2.63	A	2.83	A	2.51	A	2.34	A	2.41	A	2.63	A
	중	205	3.21	B	3.12	B	3.15	B	3.14	B	3.26	B	2.97	B	2.89	B	2.78	B	3.10	B
	상	153	3.48	C	3.55	C	3.60	C	3.56	C	3.54	C	3.40	C	3.33	C	3.33	C	3.50	C
	F 검증		27.60***		50.64***		28.54***		29.26***		17.27***		37.16***		40.54***		30.83***		75.34***	
학습환경 평가도	하	162	3.05	A	2.91	A	3.10		2.95	A	3.20		2.75	A	2.66	A	2.66	A	2.93	A
	중	234	3.18	AB	3.18	B	3.16		3.14	AB	3.23		3.04	B	2.92	B	2.92	B	3.13	B
	상	107	3.33	B	3.26	B	3.36		3.35	B	3.24		3.15	B	3.07	B	2.95	B	3.23	B
	F 검증		3.30*		7.08**		2.43		4.41*		.06		6.97**		6.04**		3.55*		6.91**	
가정교과 인식도	하	148	2.97	A	2.80	A	2.96	A	2.94	A	3.01	A	2.74	A	2.60	A	2.59	A	2.84	A
	중	195	3.15	A	3.11	B	3.20	B	3.06	A	3.18	A	2.92	A	2.86	B	2.76	A	3.07	B
	상	160	3.38	B	3.39	C	3.36	B	3.36	B	3.47	B	3.23	B	3.12	C	3.19	B	3.33	C
	F 검증		8.94***		19.51***		6.74**		6.25**		7.36**		10.69***		10.22***		3.29***		20.29***	

***p<.001, **p<.01, *p<.05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가 나타났다. 학습참여도가 '하'집단은 2.84점, '중'집단은 '3.08점', '상'집단은 3.25점으로 학습참여도가 높을수록 가정교과 내용의 유용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교과 내용의 하위영역에서도 가정교과 학습자의 학습참여도가 '상', '중', '하'집단의 순으로('신체적 발달', '사회심리 발달', '성 생리 및 임신' 영역에서), '하'집단보다 '중' 및 '상'집단이('가족관계', '의사소통', '가족과 사회'영역에서), '하' 및 '중'집단보다 '상'집단이('성에 대한 태도 및 문제') 가정교과의 하위영역에서 유용성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습 요구도에 따른 가정교과 유용성은 전체 '가족과 일의 이해' 전체와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전체 '가족과 일의 이해'의 경우 학습 요구도가 '하'집단은 2.63점, '중'집단은 '3.10점', '상'집단은 3.50점으로 학습 요구도가 높을수록 가정교과 유용성을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교과 내용의 하위 영역('신체적 발달', '사회심리 발달', '성 생리 및 임신' 영역)에서도 가정교과 학습자의 학습 요구도가 높을수록 가정교과 유용성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환경 평가도에 따른 가정교과 유용성은 전체 '가족과 일의 이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하위영역 중에서는 '성 생리 및 임신' 및 '성에 대한 태도 및 문제' 영역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전체 '가족과 일의 이해'의 경우 학습환경 평가도 '하'집단은 2.93점, '중'집단은 3.13점, '상'집단은 3.23점으로 학습환경 평가도가 높을수록 가정교과 내용을 더 유용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교과 인식도에 따른 가정교과 유용성은 전체 '가족과 일의 이해'와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전체 '가족과 일의 이해'의 경우 가정교과 인식도가 '하'집단은 2.84점, '중'집단은 '3.07점', '상'집단은 3.33점으로 가정교과 인식도가 높을수록 가정교과 내용의 유용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교과 내용의 하위영역에서도 대체로 가정교과 인식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가정교과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유용성 인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가정교과 변인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집단이 가정교과에 대한 유용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가정교과 수업이 교실보다 현장 학습으로 이루어진다고 평가할수록, 학습참여도나 가정교과교육목표 일치도가 높을수록 교과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김경숙·박미금, 1998)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개인변인, 가정교과 변인이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에 대한 개인변인 및 가정교과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습 참여도($\beta = .08$), 학습 요구도($\beta = .48$), 학습환경 평가도($\beta = .17$), 가정교과 인식도($\beta = .19$) 등 가정교과 변인으로 이들 4개 변인의 설명력은 40%이었으며, 이중 학습 요구도가 가장 설명력이 큰 변

<표 7>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독립 변인		종속 변인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	
			b	β
개인변인	성별		.09	.07
	학년		-.03	-.07
가정교과 변인	학습 참여도		.06	.08*
	학습 요구도		.59	.48***
	학습환경 평가도		.16	.17***
	가정교과 인식도		.19	.19***
상 수			-.01	
F 비			F = 54.0***	
R ²			.40	

가변인 : 성별 - 기준: 여학생, 비교: 남학생
 *** p< .001, ** p< .01, * p< .05

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교과 시간에 참여도가 높을수록, 가정교과 학습 요구도가 높을수록, 가정교과 수업방법을 이론 중심이 아니고 실제 경험중심의 수업으로 평가할수록, 가정교과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목이라고 인지할수록 가정교과 유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면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생활인으로서의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가정교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론보다는 실제 경험을 통한 수업을 통해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학습자가 가정교과의 교육목표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학습활동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교과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도가 높을수록 가정교과 유용성이 높아지므로 학습자의 학습 요구도가 반영되는 수업내용과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학습방법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는 가정과 내용 중 '가족과 일의 이해'를 중심으로 6차 교육과정 시기에 이미 중학교에서 가정교과를 학습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7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교과를 학습하고 있는 중학생이 가정교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유용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개인 및 가정교과 변인과의 관련성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과 변인 중 학습 참여도, 학습 요구도,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수준은 평균 이상이었으나 학습환경 평가도는 평균 이하로 나타나 가정교과가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우세하였다. 가정과 교육내용의 유용성에 대한 인지 경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과 일의 이해' 중 '성에 대한 태도 및 문제' 소단원에 대한 유용성 인지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소단원의 하위주제에서는 '청소년의 성 생리'와 '성에 대한 태도의 유용성' 인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개인변인에 따른 가정교과 변인의 차이검증 결과, 성별에 따라 학습환경 평가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정교과 수업을 이론보다는 경험중심 수업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학년에 따라 학습 참여도, 학습 요구도, 학습환경 평가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체로 중학생보

다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학습 요구도와 학습환경 평가에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개인변인에 따른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과 일의 이해' 교과 내용을 더 유용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위영역에서는 '신체적 발달', '성생리 및 임신'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정교과 유용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학년에 따라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전체 '가족과 일의 이해' 영역의 유용성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셋째, 가정교과 변인(학습 참여도, 학습 요구도, 학습환경 평가도, 가정교과 인식도)에 따른 가정교과 유용성 인지는 전체 '가족과 일의 이해' 영역과 대부분의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가정교과 변인의 인식이 높은 집단이 가정교과의 유용성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가정교과 유용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습 참여도, 학습 요구도, 학습환경 평가도, 가정교과 인식도 등 가정교과 변인으로 이들 4개 변인 중 학습 요구도가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과에 대한 학습 참여도, 학습 요구도,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수준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데 비해 가정교과가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우세하다는 본 연구결과는 교수학습 환경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가정교과 단원 중 학습자들이 유용하게 인지하고 있는 소단원과 하위주제에 대한 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학년이 높을수록 가정교과 학습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교과 유용성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나이가 들고 현실에 대한 자각이 높아지면서 학습자 스스로 가정과 교육내용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는 가정교과의 유용성이 현재 뿐 아니라 미래까지 활용되고 유용성의 가치가 지속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현재 가정과 수업을 받고 있는 중학생들이 가정교과 학습환경을 보다 이론 중심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은 가정과 교수학습방법이 현재 수업을 받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지각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현장 중심의 수업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하겠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정교과에 대한 유용성을 높게 인지한 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 남학생들에게 가정교과 학습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 하겠다. 가정이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과거에 비해 성평등의식이 보편화되고 가정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장소로 인식하게 된 오늘날, 남학생들에게 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갖게 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학습 참여도, 학습 요구도, 학습환경 평가도, 가정교과 인식도 등 가정교과 변인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집단이 가정교과에 대한 유용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가정교과 수업에 대한 동기 부여,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하게 하는 교수학습방법과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학습환경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가정교과 학습자들에게 가정교과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과 교재개발이 필요하며, 유용성이 낮은 교과내용에 대하여 그 원인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규명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이론적이면서 실천적 특성을 갖는 가정교과의 경우, 학습자가 배운 내용이 실생활에 응용,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 가정교과에 대한 학습 요구도가 높을수록, 실제 경험중심의 수업일수록 가정과 교육내용의 유용성에 대한 인지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첫째, 학생들의 학습요구도가 반영되는 수업내용선정 및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교과내용이 변화하는 가정생활에 적합하고 교수학습 방법이 실생활과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함이 가정과 교육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선행조건이 됨을 시사받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II) -기술·가정.
교육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기술·가정.

- 김경숙·박미금(1998). 중학생의 가정교과 활용도와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0(1). 95-106.
- 김미정·유태명(1997). CAI와 토론 학습을 연계한 가정과 교수-학습모형 개발 -〈청소년과 성〉 단원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1). 221-236.
- 김승현·정옥분(1997). 제 6차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에 대한 인식도와 학습만족도 및 주관적 학습효과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2). 47-67
- 두경자(1997). 중학교 남학생들의 가정교과에 대한 요구 및 인식에 관한 조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2). 1-15.
- 박우미 외 4인(1998). 가정과 교육론. 학지사.
- 박일록(1997). 중학교 남·녀학생이 인식한 가정과 교육내용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2). 69-85.
- 신동순 외 4인(1997). 중학교 남녀 학생별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1). 71-82.
- 신용해·조재순(1999). 가정교과를 이수별 남·여고등 학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차이.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1(1). 13-24.
- 오현주·홍성야(1997). 인천시내 남녀 중학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효과에 대한 기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1). 19-37.
- 유재봉·백영규(1995). 교육방법과 교육공학. 동문사.
- 이선자(1997). 가정과교육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2). 179 - 183.
- 이순희·김병미(2001). 고등학교 가정교과에서 옷감실 물을 학습자료로 활용한 경우의 학습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3(2). 15-24.
- 이연숙(1994). 중·고등학교 학생의 가정관리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 요구도와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2). 1-12.
- 이연숙(1997). 가정과 교수법. 신광출판사.
- 정해윤·채정현(2001). 중학교 교사와 기술과 교사의 양성평등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천도 차이.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3(2). 47-57.
- 한국가족관계학회 편(1996). 한국 가족의 현재와 미래. 하우.